


제1호 (창간호)	북토크 특!특!특!	발행일 2012.3.31 발행인 북토크북
--------------	-------------------	---------------------------------



봄 향기 가득 머금은 따뜻한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6명의 교사들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27명밖에 되지 않아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낯설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모임을 꾸린지 3년이 넘었네요. 그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책이야기를 담은 “북토크 특!특!특!”이라는 북뉴스레터를 창간합니다. 부족한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욱 유용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발행하는 “북토크 특!특!특!”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임이름 : 북토크북 - Book Talk TOK(Teacher of Korea School Library)
 구성원 : 박은하(서울사대부초 사서교사), 박영혜(서울청계초 사서교사),
 민기연(서울신림초 사서교사), 이지영(서울월정초 사서교사),
 백지혜(서울송곡초 사서교사), 유승희(서울중앙초 사서교사)
 연구방향 : 1. 좋은 어린이 책을 선정하여 함께 토론합니다.
 2. 토론을 거친 책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책을 소개합니다.
 3.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관련도서목록을 연구하여 작성합니다.

4월 과학의 달



- 과학 독후감 쓰기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학년	서지사항	책소개
저학년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 박기영 글, 이경국 그림 / 웅진주니어 / 2010	지구안의 있는 모든 것은 들고 돈다. 가치 있는 것도 가치 없는 것도... 특히 쓰레기가 들고 돌아왔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줘 어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한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과 수고에 대해서도 알려 줘 우리에게 분리 수거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어 환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수학 천재는 바로 너! / 안나 체라솔리 지음, 줄리아 오레키아 그림, 김효정 옮김 / 북나우 / 2011	이탈리아 수학 선생님이 쓴 동화로 만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야기. 책을 읽다 보면 사칙연산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바보로 여겨지는 당나귀와 암퇘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 그 재치와 유머가 돋보인다. 누구든지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다.
중학년	(토토 과학상자:21) 별가족 블랙홀에 빠졌다 / 김지현 글 / 김주경 그림 / 토도북 / 2010	[별가족, 태양계 탐험을 떠나다]의 저자 김지현씨의 이번 작품인 [별가족, 블랙홀에 빠졌다]는 서로의 주위를 빙빙 도는 짝별과,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 여러 별들이 모여 아름다운 빛을 내는 성단, 죽기 직전에 빛을 내뿜는 초신성, 어떤 것이든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풀어 쉽고 재미있다. 또한 각 꼭지의 마지막에 내용을 정리해 주고, 어려운 내용은 부연 설명을 통해 정확한 지식으로 전달한다.



- 6학년 1학기 사회 관련 도서





1단원 우리 국토의 모습과 생활

 <p>택리지 / 이충환 원작, 박세경 글, 박수민 그림 / 파란자전거 / 2012</p>	 <p>손으로 그려보아야 우리 땅을 잘 알지 / 구혜경, 정은주 글, 김효진 그림 / 토도북 / 2011</p>
 <p>손에 잡히는 사회 교과서 시리즈 / 길벗어린이 / 2010</p>	 <p>초등학교때 꼭 알아야 할 지리 100 / 류창기 / 예림당 / 2011</p>

2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p>초등 경제 생활 교과서 / 석혜원 글, 김영랑 그림 / 스콜라 / 2009</p>	 <p>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 / 배성호 글, 김보미 그림 / 청어람 주니어 / 2011</p>
 <p>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 / 아드리안 쿠퍼 / 내인생의책 / 2010</p>	 <p>어린이 경제백과 / 스무 나가이 / 이파소 / 2008</p>

3단원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p>나의 탄소 발자국은 몇kg일까? / 폴메이슨 글, 마이크 고든 그림 / 이창호 옮김 / 다림 / 2011</p>	 <p>우리가 지구를 착한 별로 만들거야 / 마라 록클리프 지음, 제효영 옮김 / 명진출판 / 2011</p>
 <p>(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선택 / 엘 고어 글, 이창호 옮김 / 주니어중앙 / 2010</p>	 <p>지금 당장 시작해! 지구를 살리는 녹색 실천 / 재키베일리 / 아이세움 / 2010</p>

학년	서지사항	책소개
중학년	지구의 마지막 낙원 / 김용안 / 시공 주니어 / 2010	아프리카 남쪽 보츠와나에 있는 넓은 습지 오카방고. 오카방고는 동물들이 맘껏 뛰노는 동물들의 천국이자 거기에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축복의 강이다. 그러나 오카방고가 지구 온난화와 사람들로 인해 위험해 지고 있다는 것을 동물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더 안타깝고 실감이 난다. 또 다크멘터리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수록하여 더욱더 생생한 오카방고를 만날 수 있다.
고학년	소담주니어 생태동화 시리즈 / 서지현 외 / 소담주니어 / 2009	우리 강, 갯벌, 숲에 살아숨쉬는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담주니어 생태동화 시리즈로 1편 “도롱뇽과 개구리 이야기”, 2편 “꼬물꼬물 갯벌 생물 이야기”, 3편 “소곤소곤 숲 이야기”로 되어 있다. 강, 갯벌, 숲에 사는 생물들이 화자가 되어 자신에 이야기를 동화형식으로 들려 주고 있어 딱딱한 과학적 지식들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고학년	지금 당장 시작해! 지구를 살리는 녹색 실천 / 재키베일리 / 아이세움 / 2010	환경 오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미래에 생길 일을 알려주면서 지구 살리기 실천이 왜 생활화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양치와 세수를 하는 내내 물을 틀어 놓고 쓰는 건 아닌지, 점심 급식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음식을 남겨 버리고 있던 않는지 작은 일이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재미있고 다양한 삽화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환경에 관련한 다양한 웹사이트도 안내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제한된 색채를 사용한 그림들로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힘과 캐릭터를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터치로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와 어른의 현실 세계의 묘한 경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또한 책의 접지 부분, 판형 등 책 자체의 형태를 이용해 내용을 표현하는 작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그림 작가이다. (YES24 작가파일 발췌) www.suzyleebooks.com



책 속 두 세상

(파도야 놀자/이수지 지음/비룡소/2009)

<파도야 놀자>는 글자 없는 그림책이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정받고 있는 그림작가 이수지의 작품에는 그녀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 제한된 색과 책의 판형, 접지 부분 등을 절묘하게 이용한다. 이 책 역시 그렇다. 파란색과 회색의 절제된 색, 바다와 어울리는 긴 판형, 책이 접혀지는 부분을 이용한 두 세계의 경계.

<파도야 놀자>는 바닷가에 나와서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가 바다와 아주 친숙하게 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이다.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 나온 아이는 바닷물에서 제대로 한번 몰아보고 싶지만 물이 무서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파도는 책의 접지부분 이상 아이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바로 그 부분이 아이와 바다의 세계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파도에게 으르렁 거러보기도 하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볼까 고민도 하던 아이는 바다를 먼저 맛본 갈매기를 따라 파도 속으로, 바다 속으로 한발 내딛는다. 한껏 신이나 큰 파도가 밀려오는 줄도 모르고 아이는 청병거리며 신나게 논다. 그러다 큰 파도를 보고 놀라 반대편 세계로 뛰어온다. 이때 갈매기의 몸과 아이의 옷은 파도의 파란색이 물들어 있다. 반대편으로 넘어온 아이는 파도가 넘어오지 못할거라 장담하며 파도를 약올리지만 다음페이지에서 파도는 전면을 가득채우며 아이를 뒤덮고 만다. 비로소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다. 아이를 따라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 갈매기의 모습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 책은 작가의 같은 책 “거울속으로”, “그림자놀이”와 함께 삼형제로 볼릴 수 있다. 모두 제한된 색, 접지 부분의 절묘한 활용, 책의 판형의 활용 등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읽기 포인트

- 파도의 파란색이 아이와 갈매기를 물들이는 것의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보자.
- 접지부분을 경계로 나누어지는 두 세계를 생각하며 읽어보자.
- 갈매기와 아이의 움직임의 관계를 생각하며 읽어보자.
- 앞 면지와 뒷 면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자.

아이들 반응

- 갈매기가 마치 아이를 놀리고 도망다니는 듯 보여요.
- 신나게 바다에서 놀았던 여름이 떠올라요.

같은 주제 다른 책 - 글자 없는 그림책
★ 사자와 생쥐(제리 핑크니 지음/열린책들/2010)
★ 꼬마 밤송이 뽀알루의 모험 시리즈(피에르 바이 지음/보리/2011)



그림자 놀이(비룡소/2010)



동물원(비룡소/2004)



거울속으로 (비룡소 / 2009)



ㄱㄴㄷ 한글 자음과 놀아보자~!

(움직이는 ㄱㄴㄷ/이수지 지음/길벗어린이/2011)

‘움직이는 ㄱㄴㄷ’. 왜 움직이는 ㄱㄴㄷ일까? 우선 이 책에 들어있는 어휘들을 ㄱ부터 ㅎ까지 살펴보면 「가두다, 녹다, 묶다, 부러지다, 사라지다, 흔들리다」와 같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이다. 또한 그림을 살펴보면 그 어휘를 설명하는 자음 그림들이 그 자체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장에 갇혀 있는 ㄱ 그림을 보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단어 ‘가두다’를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ㄴ의 아래 획이 온통 흘러내려 노란색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 봉대를 칭칭 감고 반창고까지 붙인 ㄷ을 보고 떠올릴 단어는?

이 책은 이렇게 ㄱ부터 ㅎ까지 한글 자음을 제시하고 단어 하나를 선택해 거기에 알맞은 그림을 마치 한글 자음이 살아있는 듯 표현해 놓았다. 그렇지만 단순한 구성으로 다소 맛있게 느껴질 법도 한데 예상을 깨는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곳곳에 숨겨놓은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책을 보며 직접 확인해보길 권한다.

아이들과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책에 나와 있는 어휘보다 더 다양한 어휘를 떠올리는 아이들의 순발력과 창의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저학년들과 한글 자음을 가지고 말놀이 할 때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기에 참 좋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책이다.

읽기 포인트

- 그림 부분만 스캔하여 PPT로 제작해두면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가 될 만하다.
- ‘생각하는 ㄱㄴㄷ’ 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 좀 빠른 듯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마음껏 소리칠 수 있도록 해보자. 아이들이 어려워할 경우 교사가 힌트를 적절히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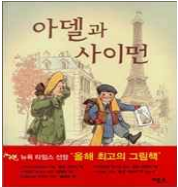
아이들 반응

- 아이들이 말한 그 밖에 단어 : ㄱ : 갇히다, ㄴ : 노랗다. 노란색, 녹아내리다, ㄷ : 다쳤다, ㄹ : 랄랄라, ? (어려워함), ㅁ : 묶이다, 매듭, ㅂ : 부서지다, ㅇ : ? (가장 어려워함), ㅈ : 잘리다, ㅊ : 차다, ㅍ : 푸르다, 파도 ㅎ : 흐릿하다
- ‘스’ 페이지를 보고 아이들이 한 말 : 선생님, 책이 잘못되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주제 다른 책 - ㄱㄴㄷ 책
★ 생각하는 ㄱㄴㄷ(이지원 기획/이보나 흥미엘레프스카 그림/논장/2005)
★ 개구쟁이 ㄱㄴㄷ(이억배 지음/사계절/2005/유아용 보드북과 일반 판형 두 가지로 출판됨.)



바바라 메클린 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사진과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아델과 사이먼』은 2006년 뉴욕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뽑혔으며 『달리아』로 보스턴 혼 북 아너 상을 수상하였다. 『메리와 생쥐』는 바바라 메클린 특의 따뜻하고 세심한 그림이 돋보이고 글을 쓴 비버리 도노프리오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글을 썼다.
(메리와 생쥐 작가소개 참고)



아델과 사이먼 따라 파리 한바퀴

(아델과 사이먼/바바라 메클린특 글. 그림/문주선 옮김/베를북/2007)

고대영 선생님의 그림책 지원이 병관이 시리즈에 나오는 병관이만큼이나 못말리는 동생이 있다. 표지 그림에서 보아도 누나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혹은 짜증스럽게 쳐다보고 있다. 동생이 무척이나 못마땅해 보인다. 아델과 사이먼은 남매다. 아델은 덜렁거리고 워트지 잘 잃어버리는 동생을 걱정스러워하는 누나다. 사이먼은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다른 것에 정신을 팔다 자신의 것을 잘 잃어버린다. 오늘도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사이먼은 자신의 물건을 거의 모두 잃어버린다. 고양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책, 목도리, 장갑, 모자, 크레용, 가방, 외투, 스웨터까지.....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사이먼은 걱정이 없다. 오히려 누나 아델이 동동거리며 물건도 찾으려 애쓰고 없어진 동생을 찾는 수고까지 한다. 그렇게 많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집에 도착한 사이먼은 뜻밖엔 선물을 받게 된다. 오면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사이먼의 집으로 온 것이다.

한편의 멋진 작품같은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우선 이 책은 1907년파리 시내 곳곳의 명소를 사진처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뒷부분의 설명과 함께 읽어보면 더더욱 그림보는 재미에 빠져볼 수 있는 책이다. 또한 그림 곳곳에 사이먼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재미이다.

읽기 포인트

- 책의 뒷부분 설명을 보며 그림 속 파리 명소를 만나보자.
- 그림 속에서 사이먼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특히 크레파스의 경우 사이먼이 메고 있는 가방 옆주머니에 있는 크레파스 색을 참고하여 미술관 안에서 4색을 모두 찾아보자.

아이들 반응

-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먼의 집을 알고 사이먼의 물건들을 챙겨 집까지 가져왔을까라는 질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이먼이 그 동네에서 잘 잃어버리고 다니기로 유명해서 엄마가 모든 물건에 연락처와 주소, 이름을 써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
- 아이들의 지능 개발에 좋은 책인 것 같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어 모둠친구들과 잠깐이라도 협동할 수 있다.
-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은 사이먼, 그림 속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 재미있다.
- 한 페이지가 풍경화처럼 그려져 있고 사이먼이 잃어버린 물건으로 숨은 그림 찾기도 할 수 있어 좋았다.

같은 주제 다른 책 - 여행그림책
★ 지하철을 타고서(고대영 글/김영진 그림/길벗어린이/2006)
★ 바람을 품은 섬 제주도(허영선 글/이승복 그림/파란자전거/2010)



다니엘의 특별한 그림이야기 /바바라 메클린특 지음 /키다리/2009



빨간 장갑/짐아일스위스 지음/바바라 메클린특 그림 /베를북/2009



메리와 생쥐의 비밀

(메리와 생쥐/비버리 도노프리오 글/바바라 메클린특 그림/김정희 옮김/베를북/2008)

메리와 생쥐 그리고 줄리와 썰리. 대를 이어 비밀과 우정을 지키는 아이들의 잔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이다.

첫 페이지 화면 가득한 견고하고 커다란 벽돌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메리와 생쥐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펼쳐지는 메리와 생쥐의 가족 소개와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이어진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관성 없이 별개의 공간에서 흘러간다.

그러다 어느 날 메리와 생쥐는 같은 순간에 각자의 식당에서 포크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줍다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매일 인사를 하며 우정을 나누지만 어른들에게는 비밀로 남긴다.

세월이 흘러 메리와 생쥐는 엄마가 되어 또 다시 한 집에 살게 된다. 그리고 엄마들처럼 메리와 생쥐의 딸인 줄리와 썰리도 서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엄마 세대의 만남과 달리 줄리와 썰리는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 훨씬 더 개인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된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따스하고 서정적인 이야기와 그림이 아이들의 마음을 살포시 움직이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읽기 포인트

- 생각해보기 : 이름이 없었던 생쥐와는 달리 그 딸에게는 ‘썰리’라는 이름이 있다. 왜일까? 어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둘은 매일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반가워했을까? 메리와 생쥐는 서로의 만남에 대해 왜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 주제나누기 : 아이들과는 나와 많이 다른 친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모습에 포인트를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 독후 활동 : 스토리텔링 중에 아이들은 이미 그림 속 생쥐의 아가자기한 소품에 매료당하지만 독후 활동으로도 흥미 유발을 위해 생쥐의 살림살이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게 하자.

아이들 반응

- 아이들은 주인공인 메리와 생쥐, 줄리와 썰리를 아주 친근하게 느낀다. 특히 생쥐와 썰리 캐릭터에 무한 애정을 느끼며 귀여워하는 여자 아이들이 많다.
- 이제 ‘그림 속 그림 찾기’ 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림 작가 특유의 세심하고 안정감있는 그림에 아이들도 편안하게 빠져든다.
- ‘비밀’ 을 간직한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아이들을 이야기 속에 몰입하게 한다. ‘비밀’ 에 관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즐거워한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다음 호는 "5월 31일"에 발행됩니다. -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관련도서, 호국 보훈의 달 관련 도서 등